

94. 12月

<國 內>

공진청은 국제품질경영체제 보증규격인 ISO 9000 규격이 지난해 개정됨에 따라 국내 대응 규격인 KSA 9000(품질경영 및 품질보증) 관련 규격을 개정 고시했다.

이번에 개정된 KS규격에는 ISO 9000 인증에 직접 적용되는 규격으로 경영자책임, 계약관리, 공정관리 등 20개 항목중 품질시스템, 설계관리, 문서관리 등 15개 항목이 포함됐다.

이번 규격개정으로 ISO 9000 인증업체는 품질방침설정, 승인등의 업무를 담당부서장이 직접 결정할 수 있고 공식계약 체결없이도 전화주문, 주문서등으로 제품을 출하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공진청은 여타 ISO 9000 관련규격인 KSA 8402(품질용어), 9000(품질경영 및 품질보증규격), 9004(품질경영 및 품질시스템의 요서)도 산업표준심의회를 거쳐 상반기준에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日 本>

일본의 혼다기연공업은 이달중 저가격 휴대형 발전기를 인도의 합작회사에서 역수입하여 판매키로 했다.

휴대형 발전기는 옥상등의 업무용 외에 최근엔 오토캠핑등 레저용 수요가 늘어나 홈센터등 소매점이 적극적으로 취급하고 있다.

역수입 제품은 출력 5백50와트의 소형발전기로 동사의 현지 기계메이커인 합작회사 솔리엄 혼다

파워 이큅먼트의 제품을 수입, 혼다기연의 브랜드로 판매키로 했다. 우선 연간 5천대 전후를 목표로 가전양판점 홈센터등을 통해 판매될 예정이다.

<獨 逸>

독일 지멘스社は 대만 경제부와 기술이전 및 합작사업에 관한 포괄협정을 체결했다.

대만정부가 추진하는 발전플랜트 교통통신등 인프라 정비분야 수주를 확대하려는 지멘스와 기술이전으로 부품의 현지 조달을 확대하여 인재육성등 산업경쟁력 향상으로 연결하려는 대만 당국의 의도가 일치한 것이다.

지멘스는 2000년까지 아시아에 35억달러를 투자하여 이 지역의 매출고를 배증시킨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한편 이 회사는 금년 대만에서 이미 120억달러 상당하는 시설 기자제를 수주한 바 있다.

<日 本>

일본의 타이오 전선은 대만의 유닉스타 테크놀로지사와 제휴, 95년 3월부터 중국에 있는 유닉스타사 공장에 프린터케이블 등의 생산을 위탁키로 했다.

가격경쟁력을 활용하여 전량을 일본에서 인수, 해외제품의 유입에 따른 채산 악화를 막으려는 것이다. 1-2년후에는 유니텍스타사와 합작방식으로 새회사를 설립, 중국에 직접 진출하여 기기용 전선 등을 폭넓게 현지 생산할 방침이다.

제휴에 따라 유니텍스타의 廣東省 東莞市에 있는 공장에서 프린터케이블의 OEM공급을 받는다.

타이오전선은 국내에서 프린터케이블을 월간 4천-5천개 생산하고 있다.

<國 內>

정부는 전력수요가 급증하면서 전력수급 불안이 예상됨에 따라 당초 98년까지 건설키로 한 발전소 29기 1212만 1천kW외에 추가로 9기 293만kW를 더 건설키로 했다.

또 현재 건설중이거나 계획중인 발전소를 점검,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범위내에서 총 11기 446만kW를 조기 준공하는 한편 적정 전력품질을 유지하고 광역 정전사고 방지를 위해 송·변전시설 투자도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유 럽>

최근 합병된 네덜란드/스웨덴합작 약조-노벨화학그룹은 수력사업부분을 스웨덴 3대 에너지업체인 스톡홀름 에네르社에 매각할 예정이다. 노벨사는 100여년간 에너지사업을 영위해 왔었다.

약조 노벨사는 스웨덴에 7개 수력발전소를 소유하고 있으며 스웨덴 전력수요의 50%에 해당하는 940기가와트의 복합 생산능력을 확보하고 있다.

<日 本>

일본의 전선 및 케이블 업체인 히타치電線은 오는 97년까지 싱가포르공장을 폐쇄하고 모든 가동을 말레이시아로 이전한다.

히타치전선의 대변인은 『지난 90년부터 가동을 시작한 말레이시아 조호르州에 있는 공장이 히타치 싱가포르社로부터 에나멜 피복銅전선의 생산을 이관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호르공장은 현재 연간 3백50만톤의 에나멜 피복전선 등을 생산하고 있다.

〈國 內〉

통상산업부는 '95년도 청정에너지기술개발에 23억원을 지원키로 하고 '95년 1월중 기술개발대상과제를 공모, 접수키로 했다.

또 청정에너지기술의 요소 및 핵심기술에 대한 체계적인 기술수요조사를 실시하고 APEC 청정석탄기술 워크숍 개최 등 국제협력사업도 본격 추진할 계획으로 석탄 및 석유 청정, 이산화탄소 에너지이용기술을 중심으로 1월중 기술개발대상과제를 공모한 후 전문가의 검토 및 평가를 거쳐 내년 5월 지원과제를 최종 확정하고 이들 과제에 에너지·자원특별회계에서 확보된 23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日 本〉

일본의 도쿄전력은 송전용 철탑의 해외조달을 개시했다.

설비투자 억제방안의 일환으로 일본의 철탑메이커를 통해 한국 대만에서 6만볼트의 고압송전용 철탑을 조달, 내년부터 설치를 개시할 예정인데 전력회사가 송전용 철탑을 해외조달하는 것은 처음이다. 동사는 銅管杭도 한국에서의 조달을 검토하고 있다.

95. 1월

〈日 本〉

일본의 히타치제작용소는 7월 제

조물책임(PL)법 시행에 대응하여 가진 정보미디어사업본부내에 '제품안전평가센터'를 설치했다.

제품안전과 불합격발생의 미연방지를 통해 제품의 품질신뢰성을 향상, 고객만족도를 높이기로 했다. 또 이를 계기로 해외의 생산거점 및 협력공장의 ISO(국제표준화기구)9001-9002 취득을 촉진키로 했다.

이 센터는 88년 설치한 '제품안전센터'를 발전시킨 것으로 제품안전과 PL대책의 철저를 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PS(프로덕트세이프티)분과회' 'PLD(프로덕트라이어빌리티 디펜스)분과회' '업무분과회'로 구성 각 분과회를 월 1회정도 개최키로 했다.

〈國 內〉

통상산업부는 '94년도 제3차 기계류·부품·소재 국산화 대상품목을 선정고시 했다.

통상부문은 이들 국산화 대상품목에 대해 시제품 개발자금 명목으로 공업발전기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키로 했으며 이번에 선정된 국산화 대상품목중 전기전자 부문은 47개 과제이며 정부는 '95년도에도 2차에 걸쳐 800여개의 국산화 대상품목을 발굴, 고시할 계획이다.

〈유 럽〉

EU가 유독화학물질인 PCB와 PCT를 함유한 변압기와 축전기등 전기제품을 2010년까지 모두 폐기 및 판매금지키로 합의했다.

EU집행위는 지난 91년 마련한 PCB와 PCT의 판매금지 및 처리에 관한 지침안을 이틀간 개최된

EU환경장관이사회에서 합의, 이같이 시행키로 했다.

EU는 이를 통해 2010년까지 PCB 및 PCT 함유기기(변압기·축전기등)를 폐기 및 처리토록 하고 50~500ppm함유 변압기의 경우는 수명이 다할 때까지 사용이 가능토록 했다.

〈日 本〉

일본의 닛쇼이와이는 메이덴사와 공동으로 홍콩지하철로공사에서 건설중인 신국제공항과 홍콩 島를 연결하는 철도용 변전설비를 수주했다. 수주금액은 5억3천1백만 홍콩달러. 홍콩 신공항은 97년 여름 개항을 목표로 하여 건설이 진행되고 있는 대규모 공항이다.

〈國 內〉

한전은 95년 상반기 중 하동화력 변경 건설사업등 40건 1조2천6백억원의 발·변전소 및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발주한다.

한전에서 발주한 전원개발사업은 △하동화력발전소 변경 건설사업 1건 △34kW신김제변전소 건설사업 등 15건 △345kV완주분기 송전선로 등 24건이다.

발전소건설 1건에는 9천8백86억 8천3백만원이, 변전소 건설 15건에는 1천6백7억2백만원이 송전선 24건 건설에는 1천1백41억1천5백만원이 각각 소요된다.

〈日 本〉

일본의 도쿄전력은 발전플랜트와 댐건설등의 발주시 부재조달까지 포함하여 일괄발주하는 방식을 개선, 일부의 고가 부재는 도쿄전력이 직접구입하는 분리발주방식

을 도입키로 했다.

일괄발주할 경우엔 중전메이커와 종합건설등 수주기업이 외부조달한 부재에 수수료를 청구하거나 가격교섭을 하지 않고 정가로 구입하기 때문에 코스트가 늘어난다. 새 방식은 수주기업이 타사에서 구입해온 부재 가운데 금액이 커 코스트감각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도쿄전력 자신이 조달, 수주기업에 현물을 제공하는 형태를 취하기로 했다.

〈國 內〉

정부는 '95년도 중소기업 단체수계약 대상물품으로 변압기등 315개 품목을 지정했다.

그리고 단체수계약 대상에서 제외되는 78개 품목중 차단기등 66개 품목은 중소기업간 경쟁물품으로 전환, 대기업의 참여를 배제키로 했다.

통상산업부는 중소기업제품구매 촉진법에 따른 단체수계약제도의 취지에 맞고 다수 중소기업자의 판로지원을 위해 실효성이 인정되는 315개 품목을 단체수계약 대상품목으로 확정, 발표했다.

〈日 本〉

일본의 三菱전기는 종합전기메이커로서는 처음으로 중국에 100% 출자의 생산자회사를 설립키로 했다.

96년 3월까지 대련에서 빌딩과 공장의 배전계통 사고방지에 사용하는 分電盤용 차단기 생산을 개시할 예정이다.

오는 97년도에는 25억엔의 매출을 목표하고 있는데 중국시장의

개척으로 사업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국내수주가 중심이었던 수배전기기 분야에서도 진출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새회사명칭은 '三菱전기大連기유한공사'로 자본금은 10억엔이다.

〈國 內〉

韓電은 중소기업기술지원을 통한 발전기자재 국산화 촉진 대책회의를 갖고 현재까지 중공업위주로 되어있는 발전설비 기술자립체계를 중소기업에까지 확대키로 했다.

한전은 협력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화력 및 원자력 발전기자재 국산개발을 위해 한전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자원과 연구개발비가 특별 지원된다.

발전설비 제조업체 관계자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서 한전관계자는 발전설비 해외시장개척을 통한 세계화전략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의 국산개발을 특별지원, 발전설비의 부품 국산화율을 높이고 또 국내기술을 발판으로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발전기자재 중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품목을 선정하여 이를 국산화하여 필요한 연구개발비 2백억원으로 오는 97년까지 무상지원 하며 중소기업이 개발한 국산화 품목은 일정기간 구매를 의무화하는 등의 보호방안을 제시했다.

〈國 內〉

통상산업부는 '95년도 수입선다변화 품목조정안을 마련, 고시하고 '95년 1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로써 수입선 다변화 품목은 230개 품목(HS 10단위 기준)에서 204품목으로 축소된다.

통산부는 수입선다변화제도의 향후 운영방향과 관련, 오는 98년까지 매년 10%씩 품목을 해제, 98년에는 93년기준(258개 품목)의 50% 수준인 129개 품목으로 줄이고 99년 이후에는 올 2월중 발표될 산업연구원 용역결과를 토대로 대일무역적자 및 산업경쟁력, 양국간 산업기술협력 등을 감안, 수입선 다변화제도의 존치여부를 근본적으로 재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95. 2月

〈國 內〉

공진청은 중소기업체들의 수출제품에 대한 품질향상을 위해 자율검사 표준기준을 마련했다.

공진청에 따르면 과거 수출검사법에 의해 강제적으로 실시하던 수출검사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일부 중소기업체들이 품질기준을 몰라 수출에 애로를 겪고 있다고 분석하고 291개 주요 수출품에 대해 자율 검사를 위한 표준기준을 제정했다. 한편 전기전자분야는 54개 품목으로 국내 수출업체의 대부분이 바이어 주문에 의한 생산에 주력하고 있어 품질향상에 관한 인식없이 생산활동을 함으로써 제품품질 향상에 애로를 느끼고 있다며 이같은 폐단을 막기위해 지난 93년부터 지난해말까지 국제규격·단체규격·국내외 각종규격 및 업체실태조사등을 통해 표준기준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美 國〉

美 제너럴 일렉트릭(GE)은 러시아에서 현지기업과 발전분야의

합작회사를 설립키로 했다. 발전용 가스터빈을 생산, 96년부터 러시아시장을 개척키로 했다. 새회사는 6월까지 스크트페텔부르크에 설립할 예정이다. GE발전부분의 GE파워시스템이 70%, 농기등의 기계메이커인 AOOT 키로프스키 더부도가 30%를 출자키로 했다.

가스터빈은 고효율 저공해의 복합발전용으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國 內)

국내 발전사업에 민간기업의 참여가 허용되는 본격적인 경쟁체제가 도입된다.

통상산업부는 신경제5개년계획 기간중에 민간기업이 건설·소유·운영하는 발전소사업 참여를 본격 허용키로 하고 우선 연내에 유연탄발전소(50만kW급) 2기와 LNG복합화력발전소 2기에 대해 민간 대상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통산부는 民資대상발전소 1단계 사업으로 LNG복합화력 2001·2002년 준공분 40만 kW급 각 1기를 각각의 단위사업으로, 석탄화력(유연탄) 2003·2004년 준공분 50만kW급 2기를 하나의 단위사업으로 각각 추진할 계획이다.

(日 本)

일본의 히타치제작소는 96년중반 알루미늄합금 프레임을 채용한 기어모터의 생산을 태국에 이전키로 했다.

이와함께 표준소형 모터를 생산하고 있는 '히타치 인더스트리얼 테크놀로지'를 방콕 교외에 이전, 동남아시아 및 일본용으로 표준

기어모터등의 생산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이를 위해 토지를 이미 확보, 현재 공장건물을 건설하고 있으며 히타치아시아에서 직접판매에 나서는 등 판매망도 확충, 아시아지역에서의 판매도 계획하고 있다.

(印 度)

인도와 미국기업들이 14억달러를 합작 투자, 인도에 발전설비 23기를 건설키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인도정부가 발표했다.

이번 계약은 풍력과 태양열을 이용한 첨단 발전설비 건설분야를 중심으로 이뤄졌는데 이로써 인도 발전설비시장에 대한 미국 투자는 모두 1백억달러에 육박하게 됐다.

이번 계약중 가장 큰 건은 EFH 석탄회사와 무굴인타셔널社간의 7억5천만달러짜리 태양열 복합발전소를 뉴델리에 건설하는 사업이다.

(國 內)

조달청은 중소기업으로부터 단체수의 계약물품을 구매할 때 업체에 대한 계약이행 능력을 사전에 철저하게 조사해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업체에는 물량을 배정하지 않기로 했다.

조달청은 특히 「KS」나 「품」마크등의 품질인증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물량을 우선적으로 배정하도록 하고 수의계약 체결시 해당 협동조합과 물량배정업체가 공동으로 품질보증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日 本)

일본의 후지電機는 중국 동부의

浙江省에 수력발전소 機器를 제조·설치·수리할 합작회사를 설립할 계획이라고 최근 발표했다.

후지전기는 중국측 합작사인 후춘지양 수력기계공장과 합작회사 설립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1천만달러의 자본금에 투입될 합작회사인 후춘지양 후지社의 지분율은 일본의 전기기계 제조업체인 후지전기가 59%, 나머지 41%는 중국회사가 차지한다고 후지전기가 말했다.

발전기, 각종 통제장치 및 기타 장비를 제조할 공장이 내년 7월에 가동을 시작하게 된다.

(印 度)

인도네시아는 오는 2004년까지 첫 핵발전소를 건설할 것이라고 「비즈니스 인도네시아」紙가 최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잘리 아론사 에너지장관이 『오는 2000년 핵발전소 건설을 시작해서 6백MW급 첫 발전소는 2004년에 가동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아힘사장관은 또 『총 7천MW의 발전능력을 보유하기 위해 자바지역에 25년에 걸쳐 12개소의 핵발전소를 건설할 것이며 비용은 최소한 1백75억달러가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으며 핵발전소 건설계획은 일본 전문가들에 의뢰한 타당성 조사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美 國)

미국의 석유업체인 모빌은 독자적인 전력개발사업을 담당할 새로운 사업부서를 설립했다.

이 부서는 세계 각지에서 발전 소건설을 비롯한 각종전력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세워졌는데 기술 및 사업개발, 그리고 프로젝트관리 등을 통합, 운영하게 된다.

모빌은 경제개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중국 인도 등 태평양과 남미지역과 동구권 및 중국 등에서 전력산업이 급속한 성장을 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민영화가 추진되고 있는 단계라고 지적하고 『모빌의 전력사업진출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고 말했다. 모빌은 지난해부터 주력 사업이었던 석유 및 천연가스부문의 새로운 사업 부문 진출을 적극 모색해 왔다.

〈방글라데시〉

방글라데시의 민자발전계획이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93년 유엔 통계연감에 따르면 '91년도 총 발전설비 용량은 269kW만 이며 화력 246만kW, 수력 23만kW로 구성되어 있다. 방글라데시 에너지성은 전력부문이 오는 2000년에 거의 4백만 kW의 최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25억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며 21만 kW 용량의 발전소 3개는 러시아와 중국의 지원으로 지을 예정이다.

〈國 內〉

정부는 산업계 수요위주의 전략적 개발지원분야 700여개를 도출해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산업기술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 올부터 시행키로 했다. 통상산업부는

'95년도 1차 공업기반기술개발 전문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공업기반기술 개발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통산부는 우선 2천년대 우리의 산업기술개발 능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해 나가기 위해 산업계 수요 위주의 전략적 개발지원분야 700여개를 도출, 올부터 5년간 지원해 나가기로 하고 소요재원 2조 2천억원은 재정경제원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공업기반기술 개발사업에 반영키로 했다.

〈美 國〉

향후 2010년까지 美國의 電力需要 증가율은 연간 1.0~1.5% 정도로 經濟成長 증가율 1.8~2.4%를 밑돌 것으로 전망된다. 發電源의 주종은 계속 石炭火力이 차지할 것으로 보이나, 가스발전이 현저히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水力을 제외한 風力·太陽熱 發電도 높은 성장이 예상된다. 原子力은 현재 진행중에 있는 改良型 原子爐에 대한 實證이 끝나고 여러가지 懸案問題가 해결될 때까지 新規發注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中 國〉

中國은 2000년까지 현재 施設容量('92년 현재 166,532천kW)을 약 1.5배 이상 증설할 계획으로 많은 외국기업의 投資를 유치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정부의 지나친 통제에 인하여 外國資本의 활발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현재 진행중인 事業도 진행이 더딘 실정이다.

한편 中國政府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직접 國際金融市場을 통하여 조성할 계획이나, 여러가지 불리한 條件으로 國際金融機關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國 內〉

만성적 수입의존형 산업으로 남아 있는 중전기분야의 자급화 및 수출산업화를 위해선 러시아와의 산업협력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중전기 산업은 기초기술의 취약성으로 인해 기술개발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으며 신제품의 개발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또 소형·범용제품에 있어서는 국산화가 이뤄진 상태지만 초고압·대용량제품이나 전력전자 및 시스템 분야에서는 선진국과 큰 기술격차를 보여 만성적인 수입의존형 산업(지난해 16억6천만달러 수입)으로 남아있다.

산업연구원은 현재 우리나라 중전기 산업이 기존의 기술협력자로부터 기술을 복사해 쓰는데만 치중해 기초기술의 무장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러시아의 경우 우리가 필요로 하는 핵심기술들을 보유하고 있어 이를 도입할 경우 국산화 및 수출산업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러시아의 중전기산업은 군수산업과 연계돼 집중 육성돼 왔는데 설계·소재·송배전기술·전력전자기술이 세계에서 가장 앞서 있다는 것이다.

〈유 럽〉

최근 地球環境問題에의 관심으로 주행중에 배기가스를 내지 않는 전기자동차가 다시 평가받고 있다. 유럽의 대형 자동차 제작사는 그 대부분이 전기자동차의 개량에 몰두하고 있으며, 그 기술은 점차 진보하여 都市圈에서 실용에 가까울 만큼 도달하고 있다.

유럽의 전기자동차 개발을 촉진시키는 또 하나의 동기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등의 ZEV(Zero Emission Vehicle)販賣義務화이다. 전기자동차 제작사는 이 기회를 살려야 할 것이며 각각 販賣戰略을 추진하고 있다.

또 IEA는 전기자동차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IEA-국제협력에의 참가를 각국에 요청하여 1994년부터 5년간 實施協定을 발족하였다.

〈美 國〉

미국 에너지성(Department of Energy : DOE)이 주관하고 있는 석탄 발전기술은 미국의 國家 競爭力 強化와 環境保存을 위해 자국의 풍부한 에너지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DOE는 산업체와 공동

으로 최신 발전기술의 상업화를 위한 대규모 실증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최신 석탄이용 발전기술 중에서도 석탄가스과 複合火力(Integrated Gasification Combined Cycle : IGCC)은 향후 가장 유망한 발전기술중의 하나이다.

IGCC는 기존 석탄화력에 비하여 우수한 環境保護, 높은 효율, 낮은 투자비, 저렴한 발전비용, 연료의 다양성 및 모듈화 설계 등의 장점을 제공해 줄 것이다. 이에 따라 DOE는 IGCC 연구개발 및 실증 프로젝트에 약 30억불을 지원하여 기술의 商用化를 촉진시키고 있다.

미 정부는 앞으로도 계속 전력이 국가 경제성장에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자국은 물론 세계적으로 매장되어 있는 석탄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기술개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이와 같은 기술개발을 통하여 국가적 이익을 창출함과 동시에 궁극적으로 세계시장에 IGCC기술을 수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다.

〈國 內〉

올해 중소기업기반조성자금으로 총 6520억원이 지원된다. 중소기업기반조성자금이란 중전 한국은행의 재할차원에 의해 기업들에게 지원되던 자금을 政策金融 축소

방침에 따라 지난해 부터 財政지원으로 전환된 것이다. 정부는 또 최근 마련된 중소기업지원종합대책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에 500억원, 신용보증기관에 1230억원을 최근 출연했다.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국가 핵에너지 관리위원회는 자국 내 원자력 發電능력 증대를 목적으로 조만간 美國, 러시아, 독일, 프랑스 등을 초청, 핵연료, 생산설비 공급에 대한 국제입찰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다.

핵에너지관리위원회 Umanets위원장은 원자력발전과 관련된 재정 지원 문제가 잘 해결될 경우에도 우크라이나가 원자력 공장을 세우는데에는 약 5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우크라이나 정부관계자는 이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우라늄은 러시아와 프랑스로부터 수입할 예정이다.

〈日 本〉

日本 중부전력은 '94년도 해외로부터 자재조달액이 '93년도보다 76.8% 증가한 350억엔에 달했다고 발표했다.

중부전력은 엔高 메리트를 이용한 해외조달을 계속 확대하는 한편 국내 각종공사에도 '95년도부터 수의 계약에서 지명경쟁입찰 비율을 50%까지 확대해 나갈 것을 결정했다.